

신속 대응으로 대형 산불 확산 막아 춘향제 ‘동행 페스타’ 추진

순창군, 피해면적 3ha 현장 350여명 투입 산불진화장비 총동원

순창군이 지난 26일 밤 12시까지 순창군 생치면 양촌마을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초동 진압에 성공하며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았다. 이날 현장에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205명, 산불전문진화대(군청) 24명, 산불전문진화대(읍면) 12명, 이동감시원 14명, 소방서 23명, 경찰 13명, 기타 50명 등 350여명이 산불진화에 투입됐다. 특히 이날 순창군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도중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회의를 중단시키고 현장으로 달려간 최영일 군수는 산불진화선 구축과 잔불 정리 등 직접 산불진화 현장을 지휘했다. 초기 산불 발생 직후 주민들의 신고와 함께 생치면 소방서와 경찰이 즉각 출동했으며, 순창군 역시 긴급재난대응령을 가동하며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섰다. 즉각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 군은 소방차 8대(덤프차 포함), 물탱크 5대, 구급차 2대, 산불임차헬기 3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용장비를 총동원시켰다.



순창군이 지난 26일 밤 12시까지 순창군 생치면 양촌마을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초동 진압에 성공하며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았다.

산불이 발생한 오후 3시 이후 1시간 30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한 군은 추가 산불발생을 우려해 밤늦게까지 잔불정리에 주력했다. 나무 벌채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실화를 추정되고 있는 산불로 군은 발화지로부터 인근 산림 3ha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산불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군민들

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장에서 고생한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편, 순창군은 향후에도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왕림 기자

순창 쌍치면 산불... 순창소방서, 신속 진화작업 펼쳐

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는 26일 오후 3시 9분,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화재로 입야 약 3ha가 소실됐으며, 재산 피해는 약 1억 6천만 원으로 추산됐다. 불은 신고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주변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신고자가 불길을 발견한 후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해당 지역에서 시각에 상부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며, 부주의(담뱃불)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불 발생 직후 소방과 산림 당국은 총 292명의 인력과 헬기 3대, 소방차 39대를 동원해 신속한 진화작업을 진행했다. 오후 6시 10분경 초진(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을 완료한 뒤 방화선 구축과 잔불 정리를 거쳐 오후 8시 1분 완전(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됐다. 이후 폭시 모를 재발화에 대비해 감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27일 오전 2시 22분, 예방순찰 중이던 생치면 119지역대가 산불 재발

화를 발견했다. 즉각적인 대응으로 불길을 잡고 추가 확산을 차단했으며, 오전 9시까지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완전한 진압을 마무리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경남 산청과 전북 고창·무주 등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며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일 서장은 "건조한 날씨 속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산객과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순창=이왕림 기자

남원시-강남제비스코,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가 27일 강남제비스코와 사회공헌활동 및 남원색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는 2024년 말 광주대, 울산과 화대 등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강남제비스코와의 협약은 이번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강남제비스코는 제비포에인트로 잘 알려진 기업으로, 올해 80주년을 맞이한 색 전문 기업이니만큼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남원색 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제 ‘동행 페스타’ 추진

남원시, 부당요금 근절 대책 마련·할인 행사 등 실시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 기간에 바가지 등 부당요금을 근절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춘향제 '동행 페스타'를 추진한다.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 방문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 정책 중 하나로 부당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할인 행사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 페스타'를 추진, 지역 축제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착한가격 시행제'와 '물가안정 점검반'을 운영하며, 주요 관광업소의 상품 및 서비스 요금을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해 안정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에는 남원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각 단체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음식점, 숙박업, 의류점, 개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나가는 상생의 장으로, 참여 업소들은 자발적으로 할인 행사



또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객에게 보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동행 페스타'는 참여 업소들이 춘향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직접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향제 기간 '동행 페스타'에 참여 업소를 이용한 관광객이 3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이벤트 부스로 가져오면 춘향제 기념품으로 교환하는 '영수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참여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기회도 제공, 동행 페스타 참여 방법 및 기타 사항은 관광과(063-620-577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동행 페스타 행사는 지역 상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행사로, 민고 찾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재활용품 수거 교환 물품 지원 연중 추진

임실군이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화장지와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품 수거 교환 물품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일정량의 종이팩, 폐건전지, 젤 타입의 아이스팩, 상패를 수집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가져가면 교환 기준에 따라 새 화장지,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준다. 교환 기준은 품목별로 △종이팩 1,000ml 5개, 500ml 10개, 200ml 20개 △폐건전지 10개 △아이스팩 5개 △상패 2개당 물 화장지 1개 또는 새 건전지 1개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헹군 뒤 펼쳐 건조하면 되고, 아이스팩은 젤 타입의 아이스팩만 교환 대상이며, 세척 후 말려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가져가면 된다. 특히, 상패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플라스틱, 목재, 금속)을 원료로 하여 만든 상패에 한해 교환이 가능하다. 폐건전지는 수은, 니켈, 아연,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게 되면 중금속으



로 인해 환경이 오염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유용한 금속자원으로 재활용된다. 군은 이에 따라 재활용품에 대한 올바른 배출과 수거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 의식 전환 등을 위해 교환사업 연중 추진은 물론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교환 사업과 별개로 아이스팩은 환경을 생각해서 젤 타입의 아이스팩보다는 물 타입의 아이스팩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임실=진흥영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한국국토정보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임실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가 지난 26일 연속지적도정비사업과 소규모미등로토지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협약은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적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속지적도정비사업은 도곽 및 행정구역 간 개별지적 접합 오류 필지 등 경계 정비가 필요한 필지를 정밀하게 수정·보완하는 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미등로토지정비사업은 최신 측량 기술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 정보를 정비하고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실군은 행정적 지원과 관련 자료 제공을 받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적 측량 및 데이터 정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소방서, 도내 업체와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119구급대의 현장 활동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원소방서는 그동안 의료폐기물을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처리했으나, 2025년 폐기물관리법 및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에 따라 소방서도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처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남원소방서는 의료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전용 용기에 밀폐 보관한 뒤,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 소각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김승현 남원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구급대원의 2차 감염 예방과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 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